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본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제3보)

-미용성형-

한동조 · 박길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Appearance Management Participant Observation Teenagers Look around III

-Cosmetic Surgery-

Dong-Jo Han · Kil-Soon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외모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다. 외모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보편적이고 매우 강력하게 현대사회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adams, 1982)

이러한 고정관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 중 하나는 특수한 신체적 매력 혹은 특징에 의해 그 개인의 전반적인 판단을 편파적으로 내리게 되는 경향을 의미하는 “후광 효과(halo-effect)”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격 특성들 즉, 재미있고, 강하고,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berscheid&walster, 1974)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덜 매력적인 사람들보다 이익을 많이 보며 타인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사람의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수술 후를 더 친절하고 따뜻하고 행복해 보인다고 사람들은 평가 하였다.(kalick, 1977)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일상생활에서 외모가 가지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기준이 젊고, 날씬하며 서구화된 신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사실이다. 외모관리가 일상화 되어 지고 있는 21세기 사회문화적 현상은 인간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은 심리적 안정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며 신뢰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청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자아관이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그들의 기분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서화숙, 2002)

김양진외(1992), 조선진(1996)등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인기 연예인을 모방하려는 심리가 강해 섭취 제한이나 에어로빅, 헬스 등을 통하여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여관찰 연구방법은 문자 그대로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세계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와 관찰은 다소 상호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활인으로서 일상세계에 전적으로 참여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위한 관찰이나 기록을 할 수 없다. 그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옥상이나 공원의 벤치에서 혹은 실험실의 일방적 투시경(one-way mirror)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전적으로 관찰하기만 할 때 연구자는 그들의 경험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없는 단점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참여와 관찰의 적절한 배합이 요구된다.(Geertz, C., 1973) 이는 특히 문화인류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에게 연구전략으로 채택되어지고 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이 자주 모이거나 왕래하는 장소에서 외모 및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참여관찰은 전문가 집단 10인과 토의를 거쳐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많이 등장하는 장소를 선

† 교신저자 E-mail: kspark@cnu.ac.kr

정하여 실시하였다. 서울 지역에서는 명동, 청계천, 홍대 앞, 신촌역 부근이 선정되었고, 대전 지역에서는 은행동 일대를 선정하였다.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사진촬영과 함께 간략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결론

청소년들의 외모에 관한 특징을 참여관찰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이 방법이 연구대상자들의 특징들을 완벽하게 파악 할 수는 없지만, 관찰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 집단을 선정하는 데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의 첫 단계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몸매를 위해 몸매관리 이상의 여러 의학적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미용성형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후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자신도 연예인의 외모에 버금가는 외모를 가지고 싶어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용성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대상자들과는 반대로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미용성형을 통해 개선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청소년들은 또한 또래와 어울려서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용성형을 통해 자기만족감의 증가나 주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발생하여도 또래집단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관찰 결과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범위나 그 지수는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이나 신체만족도 및 또래집단의 영향 등이 이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 좀 더 정확하고 세분화되어진 자료를 얻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양적 연구에서 단순화되어지는 결과들을 심층면접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 양상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 이다.

참 고 문 헌

서화숙. (2002). “여대생들의 체중조절경험과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상주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양진 외. (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pp. 197-211, 1992.

조선진. (1996). “일부 여대생의 비만수준 및 체중조절 형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

Adams, G. R. (1982). *Physical attractiveness*. In A. G. Miller, *In the eye of the beholder: Contemporary issues in stereotyping*. pp. 253-304.

Kalick, S. M. (1974). *Plastic surgery, Physical appearance and personal perception*, Unpublished doctoral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Berscheid, E., & Walster, E. (1974). *Physical attractivenes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7. pp. 157-215.